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2지부 (2023년) 수양회 보고

### -네가 낮고자 하느냐-

저희는 이곳 카니발 기간(2월 18일-21일)에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시내에서 30분 소요되는 urubo 였습니다. 30명이 참석했고, 새 양은 6명이었습니다. 타이틀은 네가 낮고자 하느냐 였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는 요한복음 8장 정죄치 않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멧신저는 patricia자매 였습니다. 둘째날은 요한복음 4장,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멧신저는 Annie 자매와 Maria자매였습니다. 셋째날은 요한복음 5장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멧신저는 Cristobal 목자였습니다.

첫째날 메세지 후에는 Life Testimony 강사로 Anni 자매, Jossep형제, Fernando 형제가 세움 받았습니다. 둘째날 메세지 후에는 Cristobal목자, Maria자매, Josue형제, Cesar형제, Carlos형제, Patricia자매들이 Life Testimony 강사로 세움받았습니다.

모든 멧신저는 세가지 주제강의 소감을 쓰고, Life 소감을 준비하였습니다. Life Testimony 강사들 역시 세가지 주제강의 소감을 감당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주 세번 이상의 주제 강의 말씀 공부를 통해, 모든 멧신저들은 말씀을 깊이 소화해서 은혜 충만한 메세지를 감당했습니다. 네명의 멧신저중 세명은 이번에 처음으로 멧신저들로 세움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들로도 세움 받았습니다.

모든 Life Testimony 강사들은 진실하게 자신들의 인생 문제와 죄 문제, 거의가 예외없이 수치스러운 정욕문제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Life Testimony 강사 중 Jossep 형제는 1년간 교회를 떠나있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부모의 이혼, 양 아버지와 살면서 겪은 아픔과 외로움,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Cesar 형제는 지난 해 처음 수양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고, 저희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성장을 했고, 이번에 Life Testimony 강사로 세움받았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아래 살면서 받은 고통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한 그의 아내 Vanessa 자매는 매우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끼쳤고, 아름다운 가정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Jossep 형제는 새 양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섬겼고, Fernando 형제는 Carlos 형제 가정과 Cesar 형제 가정, 그가 초청한 Novillo 형제를 목자의 심정으로 도우며 수양회에 인도하여 은혜가 되었습니다. Patricia 자매는 헌금을 관리하며, 수양회 멧신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양회 전체를 섬겼습니다.

또한 첫째, 둘째날, 요한복음 8장과 4장 말씀에 기초해 준비한 드라마는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고 수양회 영적 환경에 은혜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40여 일간의 수양회 준비 기간 동안에, 말씀의 능력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해 한 단계 더, 모든 강사들의 영적 진전을 섬기고자 했을 때, 한계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능력

을 체험하는 수양회였습니다. 긍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동역자님들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